



가족계획 소식

요원을 위한

1974년 9월 15일 <제4호>

<月刊>

발행인	홍종우
편집인	김방
인쇄인	
주소	가족계획 연구원 서울 서대문구 녹번동 115 (우편번호 120-02) Tel 88003~7

1974. 5. 31 등록
라-1793호

우리나라 가족계획사업은 점점 그 범위가 넓어지고 내용이 다양화되고 있다. 그 한 예 (例)로 금년부터 강화되는 병원가족계획사업 (病院家族計劃事業)을 들수 있다. 정부 당국은 지금까지 전국 보건소조직을 통한 가족계획사업에 추가하여 병원가족계획사업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좀더 나은 사업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병원가족계획사업 (病院家族計劃事業) 이란 글자 그대로 병원에 찾아오는 일반환자 및 가족들을 상대로 가족계획을 제공 설득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것이다.

본격 강화되는

병원 가족계획 사업

본격적인 병원가족계획사업 확수를 위하여 1971년부터 1973년 까지 미국인구협회 (美國人口協會)의 재정지원으로 보건사회부 주관하여 33개의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실시된 바 있다. 이에 금년부터는 유엔인구활동기금 (UNFPA)으로부터 정부가 재정지원을 받아 우선 전국의 75개 병원 (5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을 선정하여 사업을 확대 착수하였다.

지금까지 정부사업에서 집중적으로 치중하여온 농촌주민과 저소득층의 범위를 보다 확장하여 집차적으로 도시주민과 중산층에 대한 사업에도 역점을 두고자 하는데 앞으로의 병원가족계획사업의 기본취지가 있다.

특히 중산층은 가족계획 수용태도 (受容態度) 나 자녀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을 변화시키는데 영향력이 큰 집단으로서 더욱 중요성이 강조된다.

사실 과거 정부가족계획사업의 주된 실시 대상이 대부분 저소득층에 국한된 인상을 주어 왔으며 그들의 자녀수를 감소시킴으로써 그 자신들의 가계지출을 줄이고 경제생활을 향상시킨다는 가족계획의 가장 일차적인 목적의식만 국민 각층에 심어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병원가족계획 사업을 통하여 가족계획 수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비부담 (自費負擔)으로의 전환, 피임호

병원환자와 가족대상: 도시주변·중산층에도 역점

과 (避妊効果)의 상승, 불임시술자의 증대 등 여러가지 가족계획 사업에 유리한 가능성을 타진하여 전반적인 정부가족계획사업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종합병원의 이용도가 점차 높아지고 분만 (分娩) 및 인공임신중절을 위하여 병원을 찾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병원사업을 가족계획 사업으로 흡수할 필요성은 더욱 고조 (高潮) 되고 있다.

과거에 실시된 병원가족계획사업은 병원내 (内)의 정규업무가 아니고 단순히 병원장 또는 산부인과 과장파의 계약에 의하여 추진 (推進) 되었기 때문에 이를 개선에 따라 사업이 좌우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가족계획전담요원이 확보되어있지 못한 채 병원내의 기존 (既存) 간호원이 본래 업무와 병행하여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이 부진한 편이었다.

이 밖에도 조직 (組織), 지도, 감독기능, 병원자체의 관심도, 홍보활동, 다른 부서의 지원등이 미약 (微弱) 하였기 때문에 꾸준히 성과는 얻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예를들면 병원가족계획사업 전 실적 (全實績)의 반 (半) 이상이 대도시의 4개 종합병원 실적이이고 나머지 29개 병원의 실적은 대단히 부진한 상태였다. 그러나 병원사업 수용자의 특성이 대부분 중산층에 속하는 부인들로 평균 자녀수도 정부사업 수용자의

올해부터 실시 병원 75개소로 확대... 재정·행정지원

경우보다 훨씬 적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병원사업을 통하여 가족계획사업의 질적인 면을 보다 향상시키고 병원자체에서도 가족계획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할 수 있는 계기 (契機)가 마련된 것이다.

병원가족계획사업이 가지는 장점 (長點)과 특색 (特色)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병원을 스스로 찾아오는 환자와 그 보호자를 상대함으로써 먼 거리를 왕복하지 않고도 짧은 시간에 많은 계통대상을 찾을 수 있고 ② 병원을 찾아 오는 환자는 별씨 의사나 간호원의 권고사항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복종하려는 태세가 갖추어져 있으며 ③ 많은 경우의 산부인과 계통 환자들은 다른 의료시술과 병행하여 손쉽게 불임시술을 할 수 있으며 ④ 가족계획요원이 같은 환자를 대상으로 계속적인 설득이 가능할 것이며 ⑤ 중산층 내지 고소득층의 환자들도 많이 접촉함으로써 가족계획사업이 중진의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한 무료시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확대될 수 있다.

유엔인구활동기금 (UNFPA)의 재정지원으로 금년부터 실시될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병원사업 중앙지도감독반」이 조직되어 있다. 실적보고 (實績報告) 체계는 현정부사업과 동일하여 종래 이원화 (二元化) 되어있던 보고제도를 개선하여 일원화 (一元化) 하였다. 이 사업을 위한 각 병원의 재정지원은 정부가 대한가족계획협회를 통해 각 병원에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지정된 각 병원은 가족계획상담실을 설치하여 그곳에 요원을 한 명씩 배치하고 모든 상담에 응할은 물론 이를 통해 피임약과 콘돔등도 병원을 찾는 대상자들에게 무료로 배급하게 될 것이다.

과거에 33개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했던 시범사업에서 자작된 각종의 취약점을 보강하여 계획 수립된 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사업평가와 관계 각 기관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상 전시실

인구증가율과 倍增년수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는 인구증가율로 표시된다. 즉 인구증가율이 높으면 높을 수록 인구가 증가되는 속도가 빨라진다. 인구에 대한 학설을 처음으로 발표한 토마스 말러스 (Thomas Malthus)는 인간이 필요로 하는 생활물자 (生活物質)는 산술급수 (算術級數) 적으로 증가되며, 인구는 기하급수 (幾何級數) 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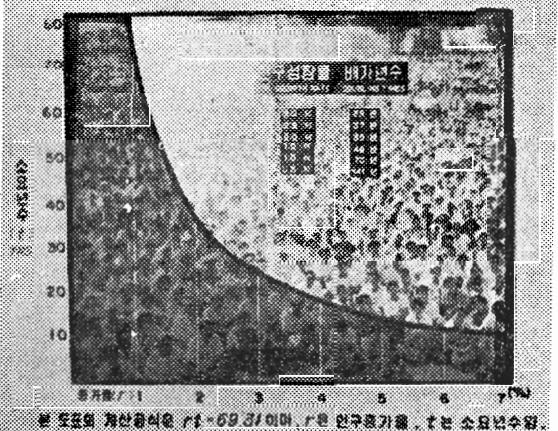
그러면 인구는 얼마나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을까? 여기의 도표는 인구증

가율에 따라서 인구가 두 배로 증가하는데 소요되는 기간파의 관계를 표시한 것이다. 이 그림에서와 같이 인구증가율이 3%인 경우 인구가 두배로 늘어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23년이된다.

또 인구증가율이 2%인 경우 배증 소요년수는 35년이 되며 1%인 경우는 약 70년, 그리고 인구증가율이 0.5%로 감소되면 인구가 두배로 느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훨씬 연장되어 무려 141년이 소요된다.

인구성장율과 배가년수

POPULATION GROWTH RATE & TIME IN WHICH POP DOUBLES



이와 같이 인구증가율의 시기별 되므로 인구는 서서히 증가하게 된다는 것인데 필요한 기간을 지연이다.

피임약 복용을 잊었을 때



먹는 피임약을 복용하는 중 한알을 잊은 경우에는 생각 난 즉시 한 알을 먹고 그 다음부터는 정상적으로 복용한다. 즉, 복용을 잊은 다음날은 두 알을 먹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모두 아시는 사실이죠? 그러나 두 알을 계속해서 해서 결론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그럼에도 역시 생각 난 즉시 두 알을 복용하고 다음날 또 두 알을 복용한 후부터는 계속해서 다시 정상적으로 매일 한 알씩 일정한 시간에 복용해야 하죠.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임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피임법 (콘돔, 주기법, 성교중절법 등등)을 동시에 써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어머니들께 강조하세요. 약은 한번도 결르지 말아야 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어쩌다 결르는 경우를 대비해서 다른 효과적인 피임법을 병용할 수 있는 준비가 해상 되어 있어야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답니다.

병원 가족계획 사업 평가·훈련 가족계획연구원서, 세차례 세미나도

가족계획 연구원은 병원 가족계획사업 (病院家族計劃事業)의 평가 및 관계원의 훈련을 위하여 세부작업계획 (細部作業計劃)에 의한 하나하나의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다.

평업무로는 지난 8월 1일부터 병원사업의 배경, 운영실태, 실적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조사하기 위한 기초조사 (基礎調查) 와 쿠몬분석작업에着手하였다.

또한 지난 8월 2일 가족계획연구원에서는 이 훈련에 대비한 준비회의 (準備會議) 가 보사부 관계관 및 연구원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날 회의에서는 훈련대상자 중 의사나 요원 (간호원) 이 대부분 가족계획 사업에 경험이 없다는 점이 논의의 초점이 되었다. 따라서 요원 (간호원) 훈련기간을 종래 2일 예정에서 1주일로 연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과 각 시·도 (市·道) 가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勘案) 해서 능력있는 의사나 요원을 병원사업요원으로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되었다.

이 회의 결과에 따라 가족계획연구원에서는 병원 가족계획사업에 종사하는 의사 및 요원 (간호원) 에게 정부 가족계획 사업의 중요성과 병원 가족계획 사업의 방향 및 기본방침을 주지시켜 모든 의료인으로 하여금 가족계획사업에 적극 참여하게 하고 직접 수태조절방법을 보급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경제적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을 도모하게 하기 위한 세미나를 오는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다. 이 세미나의 주제는 「

도록 하기 위하여 전국 75개 본사업 지정병원의 의사 및 요원을 대상으로 쎄미나와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훈련을 통하여 사업의 관심도를 높이고 기본적인 운영지침 (運營指針) 을 시달 (示達) 하는 동시에 쎄미나를 통해서는 사업수행상의 문제점을 파악케 하고 개선안 (改善案) 을 전의 (建議) 하게 된다.

병원사업 종사자 훈련회 중 의사 쎄미나가 지난 8월 27일과 28일 양일간 열렸으며 요원 (간호원) 훈련이 지난 9월 1일부터 14일까지 1주일간 실시되었다.

이 밖에도 가족계획연구원에서는 전국의 종합병원장 (綜合病院長) 들에게 정부 가족계획사업의 중요성과 병원 가족계획 사업의 방향 및 기본방침을 주지시켜 모든 의료인으로 하여금 가족계획사업에 적극 참여하게 하고 직업 수태조절방법을 보급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경제적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을 도모하게 하기 위한 세미나를 오는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다. 이 세미나의 주제는 「가족계획사업이 사회경제 발전 (社會經濟發展) 과 국민보건 향상 (國民保健向上) 에 미치는 영향 (影響) 과 병원의 사명 (使命)」 이 될 것이다.

~~먹는 괴임약은 해로운가?~~

—영국 로얄대의 연구보고서

영국 토양의 대에서 실험하여 온
먹는 피임약에 관한 연구결과가 최근
성공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성과까지 사람들은 먹는 피임약
에 관하여 많은 의문을 제기하였다.
왔으나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오로지 이 약의 장기 복용자를
장기간에 걸쳐 주의 깊게 판찰하여
야만 유통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와같은 정확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적어도 만명 이상의 고임암 복용부인들을 주의깊게 판찰할 필요가 있으며 또 같은 크기, 같은 특성의 비(非)복용부인집단을 대조군(對照群)으로 삼아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전의 연구결과는 단지 혈전증(血栓症)과 같은 특정질환을 가진 소수(100명정도)의 부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끝에 얻어진 성과에 지나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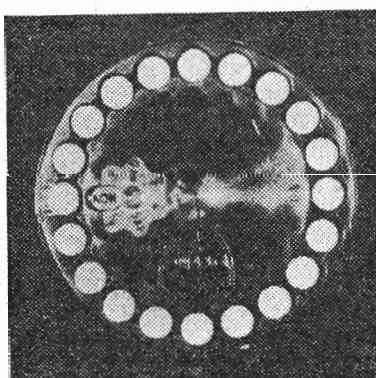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는 2년에 걸친 연구계획에 이어 1968년부로 1972년까지 장기기간에 걸쳐 23,000명이 넘는 먹는피일약복용 기혼부모와 같은 수의 복용경험이 없는 부인을 대상으로 하여 대규모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연구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던 배경은 영국의 훌륭한 전의료제도, 충분한 의료인력 그리고 대학이 갖고 있는 특수한 시설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연구는 개발도상국에서는 감히 실시할 두도 못냈으며 다른 선진국에서도 조차도 그 실험이 불가능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번의 성과는 앞으로 수년간 계속해서 먹는 피임약에 관한 충족적인 연구결과로 제시 이용될 것이며 전세계적으로 깊은 연구를 맹세 될 것이다.

중전에 실시된 소규모의 연구는
약의 복용으로 인한 원치 않는 힘
병증에 대하여 집중되었던 경향이
있으며 복용자의 전강에 미치는 전
반적인 영향에 관하여 현명하고 공
정한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번 보고는 데
는 피임약 사용의 장점과 함께 협
력성에 관하여도 함께 이를 제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성
과는 원치 않는 일선에 방향하는 이
점을 제시할뿐 아니라 먹는 피임약
복용으로 야기되는 특성의 실각한
합병증이나 또한 경미한 여려 가지
증세를 포함하는 내용도 함께 포
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모한 것의 깊은 사실을 떠는 피임약 복용에 있어서 그간 원치 않은 복합성종의 존재를 인정하여 왔으나 그 도를 축정해 내거나 이를바른 편지를 드끼고 싶었는데 큰 불편을 있어 이 사실은 때로 의료인과 일방의료인간에 실각 논의는 상이 되어 왔었다. 이번에 보고된

4만여명을 조사한 최초의 포괄적 연구……[봉자들이] [집단]에 명쾌한 해답



은 피임약이 혈전증 발생율을 25%나 감소시켰다는 사실도 아울러 알려졌다.

수천 가지의 질병을 피임약복용과 관련하여 다른 이 연구보고서에 서술하였다. 「지금까지 알레르지지 않았는데 새로운 피임약작용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또 「부작용이 있다면 그것이 부작용이기 때문에 알레르지가 아닐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부작용이 위험이 적거나 전혀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다.」라고 말하면서 「피임약복용으로 인한 후일 입신과 출산의 비정상은 전혀 거두었는 사설로 나타난 것은 이 구의 가장 중요한 발견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결과

장단점·부작용등 상세히 밝혀
"자신을 가지고 계속사용 권장"

한 경험이 없는 부인들에 비하여 유방에 중앙이 생기는 유통이 적은 경우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이 연구에 의하면 실증적 결과는 오른쪽에 먹는 피임약이 유암에 대하여 예방적인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명치 않았던 것이다. 또한 후진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실의 진실성이 원인 분석에 의한 별별 증과 철분결핍에 의한 원인 불

명성빈혈에 이 악이 큰 도움을 준
다는 것과 먹는
피임약 복용자에
있어 월경기 간중
또는 월경경기 간
중에 고통스러운
증상이 비복용자
에비해서 29%나
적다는 사실이다
또한 이 악 사용
의 다른 이점은
여드름을 자방
난중 그리고
지가 멀을 생긴다
지는 이 절도를 수 있었

다. 반면에 이 연
구는 또한 극하
드문 경우이기는
하나 심부정맥(深部靜脈)의 혈

보고 중에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피임약 복용자의 15.5%가 부작용에 대한 불안 때문에 복용을 중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규모의 이번 연구 결과 보고는 가족계획 사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들로 하여금 앞으로는 피임약의 계속 사용을 인정하고자 확신하게 한다.

일어날수있는 합병증

원치않는 합병증

이로운 합병증

제경복수
설문결핍성변형
제경전증후
양성유방증양
커지
난소낭종
여드름
지방성낭종

내가 생각하는 우수한 계동원

이 정 임

(1) 요원의 자세와 임무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식량生产的이 어려워지고 경제성장을 저하시키며 환경오염과 자원을 고갈시키며 사회악은 물론 주택난을 격화시킨다. 가족계획은 한가정에 알맞는 수의 자녀를 계획적으로 출산함으로써 한가정의 행복을 물론 국가에 기여하는 것이 되고 전세계적으로 인구조절정책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요원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가족계획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을 잘 습득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해 주도록 신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해야겠다.

(2) 활동

지역사회를 알고 있어야 그 지역사회에 알맞는 방법으로 일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를 파악하고 연구해야 되겠으며 아울러 농어촌지역사회는 전통과 습관을 중하게 여기고 가문을 중하게 여기는 보수적인 성격이 강한 반면 도시지역사회는 현실주의적이고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생각과 가문보다는 개인의 영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전체적인 성격과 세심하게 특성화된 자세히 연구하여 그에 알맞는 지도계동방법을 써서 효과적으로 활동을 해야겠다.

피임법중에는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이므로 설명할 때 장점을 이야기하고 「또한 단점도 있음을 알게 되었지만 대로 말하는 것이 오히려 설득이 강할 때도 있다. 너무 심하게 자기주장을 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차분하고 청정하게 말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때때로 계몽을 하더라도 협소분으로 곤란을 겪을 때가 있다. 가족계획을 찬성하는 지역社会의 명사와 반대하는 사람, 지도요원등과 자리를 같이 하여 토론을 한다든지 보건소나 시설병원 상담소등의 사업소개를 하여 반대하는 사람이 자신은 실천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요원들의 활동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접촉인 것 같다. 가정방문으로 문제를 개인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보다 효과적이다.

(3) 각오와 반성

가족계획사업을 남이 하라고 해서 하기 일이 아니고 국민들 각자가 자발적으로 자기생활을 고쳐나가는 내부개혁운동으로 발전되어야만 비로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머니회와 같은 주민조직을 확대시키고 활동을 강화해야겠으며 모자의 진정한 가정경제도 사회참여와 지역사회 및 국가의 발전에서 가족계획이 절대 필요함을 적극권장하며 목표에만 치중하지 않는 진실한 송신자가 되어야겠다.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사무소>

요원들의 광장

가족계획 배달원

이 영 순



여름의 따가운 햇빛을 온몸에 받으면서 푸른색 가방을 어깨에 메고보면 묵직한 힘을 느낀다. 그러나 출장길을 나서는 나의 마음은 한결 가볍다. 오늘도 농촌 어느 구석에라도 가족계획 성공이 눈앞에 아놓거리니까. 어깨에 메여있는 “보건사회부, 대한가족계획협회” 명찰만 보아도 흐뭇하다. 가족계획요원 아닌 판사람들은 감히 들어 볼 수나 있을까. 실로 자랑스런 가방이다. 좋은 땅길을 걸어서 간다. 들에서 일하는 아저씨들도 정답다.

“보건소 아가씨 메고있는 그가방 무슨 가방이요?” “이것보시면 모르겠어요? 가족계획에 대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들어있는 가족계획 배달원 아닙니까? 좀보시겠어요? 보시는데는 꿈짜예요! 돈 달라 안합니다. 구경 좀하시고 배우세요. 아시고 싶은걸....” 한바탕 웃는다. “앗파! 벌거 다 들었구나! 끈풀, 먹는피임약, 계몽용 팔프렛, 가정의벗, 책자등 많구나!” “뭐 필요한것 있어요?” “하하 아가씨 텔털해서 좋구만. 시골에서 어지간 한데!” “사람 너무 알보지 미세요! 나는 내 직책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긴다고요.” 이 가방파 함께 보내는 내 일파는 마냥 즐겁기만 하다. 내가 하는 일의 보람이 내국가와 민족에게 비칠것을 눈앞에 그리며 온 종의 싸연데 피곤도 어느새 사라지고 내일의 행복한 품만을 그리는 내 얼굴엔 웃음이 번진다.

<경남 진양군 내동면사무소>

내가 경험한 첫 정관 수술 권유

정 순복

요원발령을 받은지 한달쯤 되었을 때 가까운 이웃마을로 출장을 나갔다. 마을입구에 있는 조그마한 초가집이었다.

가족계획 수첩을 보니 자녀가 여섯, 부인은 지난 3월에 자궁내장치를 하였다가 자연제거된 후 재삽입을 하지 않고 먹는 피임약을 사용하고 있었다. 앞으로도 7~8년은 피임을 계속해야 할 연령층이기에 정관 수술을 권유하기로 결정하고 주인아저씨한테 불임수술에 대해 설명을 해 드렸다. 그리고 지나는 말처럼 수술을 받으시라고....

예전한대로 껌뻑 된다.『별소릴 하는군...에가 또 생겨도 내가 낳 내가 기를테니 걱정말라』는 것이다. 오늘은 이쯤 해두기로 하고 발쳤다. 내일 다시 찾기로 하고 아저씨의 실정을 서서히 변화시키는 전을 세우기로 한 것이다.

내가 세운 작전은 적중했다. 드디어 아저씨가 시술날짜를 약속했던 것이다. 그러나 아저씨는 그 약속을 지켜주지 않았다. 약간 마음이 언짢았지만 이에는 애당초 각오했던 것이기에 다음을 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 새로운 인식을 하도록.... 며칠간의 정신적 육체적 피곤이 꺼번에 화악 밀려오는데도 난 처음으로 말할수없는 환희를 느꼈다.

<전북 고창군 대산면사무소>

첫 근무때의 추억



여고를 졸업하고 병아리 사회인으로 밭을 하던 날은 천미하는 듯한 불렀었었다. 내게 직업은 란 참으로 신기 두렵고 가슴설레이

것이었다. 조그마한 청내에서 가족계획지도도 으로 근무하기 시작했다. 어떤 직업인가족계획에 관한 질문을 하기에는 있는한 성의껏 대답은 했지만 미흡한 것 같아 죄송스럽기만 했다.

어설프게 그러나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던 생활속에서 첫월급을 받고 력의 댓가를 받았다는 감사한 기분에서 약간은 흥분된 상태였다. 나는 중에서 얼마를 저금하기로 생각했다 소파에 앉아 기다리던 중 우연히 풋이에 많은 주간지와 잡지들이 걸려있던 것을 모았다. 내눈에 띠어온 「가정의 벗」이라는 책이었다. 나는 예금통장을 받은후에도 그 책에 읽고 사무실로 돌아온 기억이 난다 그 후론 이것저것 습득할 수 있는 것은 어느것이나 열심히 찾아다녔다.

오늘은 바쁜 농번기이므로 약간은 계몽을 나갔다. 면소재지에서 8km나 어진 산간벽지이다. 남녀 50~60명이었다. 본돌사용법에 대해 심각하게 의하기에 나는 준비한 큰들을 꺼내 소에 본 책자를 참고하여 설명했을 때는 팔프렛등을 나누어 주면서 을 어설프게 답변하면서 그때는 떨라진 나 자신을 발견하고 스스로 대견스러움을 먼저 느꼈다.

<경남 함양군 수동면사무소>

의 광장

조애자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사무소>



<1> 모자보건요원으로 일년동안 근무하다 발령을 받고보니 무엇보다도 열심히 일해보겠다는 꿈으로 사업에 일했을니다. 지역상태를 알 있어서인지 이런 때는 꼭 친정가 기분이 되었습니다.

<2> 가족계획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으면서도 마치 우리가 아쉬워 찾아내는 것처럼 생각할 때는 그들을 설득하기에 앞서 화부터 났었습니다.

<3> 관심을 보이지 않던 사람들에게 꾸준히 실망하지 않고 노력할 때 결혼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도움을 청해옵니다. 이럴 때는 자신감을 갖게 괜 보람도 느낍니다.

<4> 발령받는 날부터 자신을 방각이라고 부탁하고 싶군요. 주민들이 무 말을 하든지 웃으면서 자신을 죽이고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5> 정판시술 권장시 서슴치 않고 고려를 없이 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판시술 팜플렛을 이용해보았습니다.

<6> 시풀에 있는 계몽원을 위해 배수 있는 자료가 꼭 있었으면 해요.

가족계획소식에 면을 떠 눌려서 여모로 배울 수 있는 길이 되었으면 해요. 그리고 원들에게 대우를 좀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대 <경북 허원면 사무소>



<1> 국가의 봉사자가 된 기쁨과 사랑감에 적정이 앞섰습니다.

<2> 남아우위사상에 젖어있는 사람들을 설득할 때가 제 어려웠습니다.

<3> 반대하면서 사람들이 설득되어 적

<속이에게>

황희순



속아!

오늘따라 유난히도 밥이 맛구나. 명청히 테이블 앞에 앉아 창밖을 쳐다보려니 밥은 밥솥에 문득의 귀여운 얼굴의 보조개가 보이는 듯해 놀랐단다. 이렇게 펜을 벗었는지. 날마다 반하는 일과 속에서 조금은 짜증이 나

겠지만 모든 것을 잘 참고 견디어 나가겠지 하는 생각을 하니 더없이 기쁘다.

속아.

새까만 포도송이를 보면 우리의 지난날이 생각난다. 작년 이맘때였지, 둘 이서 그 먼 포도밭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걸어갔던 일말이다. 너는 나에게 생피하게 가족계획하세요, 피임하세요, 그리고 다닌다고 마구 흘려 뒀었지. 그런 어린에 같은 네가 시집을 간다니 난 자꾸만 꼬마 신부가 어떻게 시집살이를 할까 하는 생각에 걱정이 된다. 시집을 가면 머지 않아서 아기 엄마가 되겠지. 그렇게 되면 넌 언젠

장으로 심지어는 집에까지 와서 도로 전파같이 해놓으라고 애단하던 사람의 부인이 어머니회 회장을 하겠다고 나서고 또 열심히 하는 것을 볼 때 보람있었습니다.

<4> 물론 우리의 목적은 취직해서 돈을 벌겠다는 것이지만 이 사업을 부담보다 신념과 사명감 없이는 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우리 여성에게 중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결혼해서 실천하는 것이 곧 가정이 행복해지고 국가와 온인류에게 공헌하는 것임을 잊지 말고 사업에 임하도록 바랍니다.

<5> 부작용의 사후처리에 관한 지식이 제일 부족합니다.

<6> 당국에서는 일선에서 다년간 일했고 계몽해서 일을 할 만한 기혼요원에게 좀더 여러분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숙 <전북 일설군 청룡면사무소>



<1> 어디서부터 일을 시작해야 할지 알 이 감각 있어요.

<2> 미혼으로서 결혼생활에 대해 얘기해야 하는 것이 어려웠고 한 선생실적이 으르면 월급이 얼마나 인상되느냐고 물어오며, 무슨 동정이나 하는 듯한 태도는 참기 어렵웠습니다.

<3> 전주로 가는 버스속이었어요. 어떤 부인의 몸이 진통을 겪고 있는데 시끌벅적에서는 절상분만이 어려워 전문의를 찾아간다고 하더군요. 그 일산부는 끝만 많이 낳은 부인으로 제 기억에 남아있던 삼모였어요. 그래서 지정병원에 애수병원에 안내해드릴테니 분만과 함께 난관시술을 받도록 권했죠. 제일은 다 체체놓고 병원에 가서 수축하고 파장님을 뵙고 일을 마쳤습니다. 그때의 그 고마워 하면서 표정 정랄로 저 자신도 눈시울이 뜨거울 지경으로 기뻤습니다.

<4> 마음의 자세가 충분히 서있어야 되겠어요. 자신을 희생해야 지역 사회에 봉사해야겠다는 마음과 전문지식을 갖는 데 노력해야 필요합니다.

<5> 부작용이 생겼을 때 충분히 민족 할만한 대답을 주지 못할 때 위치가 부끄럽고 새로운 지식이 절실히 필요해집니다.

<6> 너무 목표량에만 치우치다 보면 질적인 사업에 등한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가 한번쯤은 내가 얼마나 귀중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될거야. 몇년 후에는 가족계획에 대한 상담을 하기 위해 보건소 문을 노크 하겠지. 그때 나를 찾아와 준다면 내가 아는 만큼 좋은 피임법을 가르켜 줄게. 그런 나도 아기 엄마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지. 벌써 가족계획 부터 생각을 하다니 참 우습구나.

속아.
넌 아들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 수 있는 좋은 엄마가 되어 주길 부탁한다. 안녕.

<충남 논산군 채운면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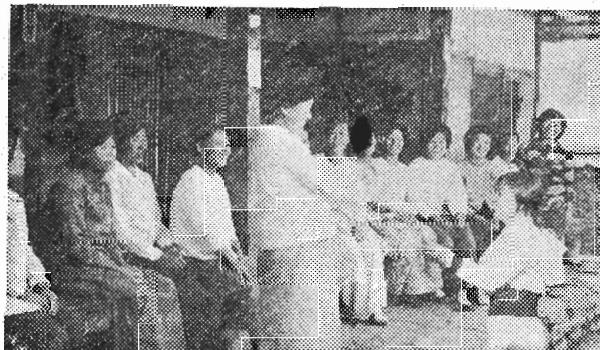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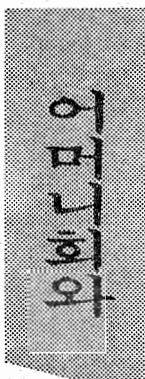
1968년 5월 1일부로 전국에 최초로 어머니회가 조직된 이후 벌써 6년이 지났다. 당초 어머니를 상호간에 가족계획권장과 먹는 피임약의 보급망(補給網)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전국의 16,868개 법정리·동(法定里·洞)에 각 한개씩의 어머니회가 조직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5년이 경과하도록 이들 어머니회의 전국적인 현황과 그 활동상(活動像)에 판하여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한 터에 금년 서을대 보건대학원의 연구진(研究陣)에 의하여 그 전국적인 조사가 실시됨으로써 어머니회의 현황에 관한 전모(全貌)가 밝혀지게 된 것이다.

가족계획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라서 전국민이 참여하고 생활화(生活化)하는 국민운동(國民運動)의 하나이기 때문에 현지조직(現地組織)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민중속에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어머니회는 이 나라 가족계획사업을 위한 혈관(血管)인 동시에 뿌리가 되는 것이며 일선요원들을 위한 활동의 발판이 된다. 만일 어머니회가 없더라면 현지요원(現地要員)들이 무엇을 바탕으로 활동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

규칙적으로 모이고 있었다. 이들의 활동내용을 살펴보면 전국의 어머니회 중 48%는 일반적으로 활발한 데이며, 그 저그림 곳이 37%, 이를 뛰어난 곳이 15%가량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농촌에는 적어도 만(萬) 여개의 살아 움직이는 어머니회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회는 가족계획실천을 위한 사회적·심리적·압력(壓力)조직의 역할

민을 대상으로 하는 현실점에서 요원들을 혼자서 가가호호(家家戶戶)를 방문하여 계몽지도하기에는 힘이 부족하다. 누구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 많아서 이들을 일일이 찾다니며 만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현실이다. 다행히도 어머니회가 조직되어 있어서 일선요원은 이 조직의 일원(任員)들만을 확실히 포섭(包攝)함으로써 판내(管內)전기구(全家口)의 가족계획실천상황을 파악하고 격려할 수 있는 이점(利點)이 있는 것이다.



해 볼 때 어머니회의 중대성은 자명(自明)해지는 것이다. 그 의의(意義)를 논(論) 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어머니회의 현황(現況)

1968년 처음 조직된 어머니회는 그 후 점점 세분화되어 현재는 대개 행정리·동(行政里·洞) 또는 자업부탁단 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금 전국적으로 약 23,000개의 어머니회가 조직되어 있다. 1973년 현재 이들의 평균회원수는 30명내외의 옆으며, 회장(會長)의 평균연령은 39세, 회원(會員)의 평균연령은 36세, 그리고 마을안에 살면서 회원이 아닌 유배우(有配偶)가입여성들의 평균연령은 32세로서, 일반적으로 가족계획실천의 필요성이 시급한 부인들이 어머니회에 더 가입하고 있고, 자녀를 더 원하거나 당장 가족계획실천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부인들은 어머니회에 들지 않고 있는 현상이 뚜렷하다.

전국의 어머니회 중 약 70%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고, 7%는 두 달에 한 번씩, 그리고 22%는 비정기적(非定期的)으로 모이고 있으며, 약 1% 정도는 한 달에 두 번씩이나

을 담당하고 있다. 이웃에서 아부도 하지 않으면 아부리 이(利)로운

일이라도 선뜻 행할지 하면서 있다. 때로는

며 혼자서 새로운 도움이 없는 있으나 이웃의 지지를 받지 못하기 쉽다.

들이 다 하는 가족계획을 혼자서만 하지 않는 것도 전단규범(集團規範)에

벗어나는 일이므로 어머니회는 이런 한

대중심리(大衆心理)를 이용하여 농촌사회에서 부인들로 하여금 이웃을 따라

가족계획을 실천하게 하는 설득력 있는

심리적·압력조직의 역할을 감당해내면서 그 기본목적인 가족계획권장 및 보급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가족계획은 특히 성(性)과 관련되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내용과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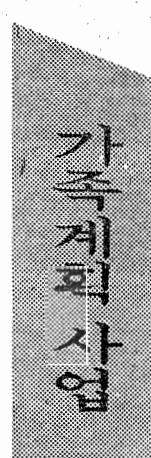
하기가 거북하지만 어머니회를 통해 부인들을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게 됨으로써 그 대화의 금기성(禁忌性)

을 깨뜨리고 서로 의논하며 회장 활

수 있는 좋은 사회적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어머니회의 이용 방법

요원 1인당 평균 15,000명 가량의 주



그러나 단지 회장 등 일원의 일부만을 상대하고 나머지 마을 부인들을 위주의 명목적인 추종자로 만 경시(輕視)하는 태도가 있어서는 안되겠음을 강조해두고 싶다.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 마을안에서 내심으로 존경

받는 벅 많았던 부인이 회장으로 추대(推戴)되지 못하고 오히려 권력이나 기운을 배경으로 오만불손한 어머니회장으로 선출되어 있을 때는 오히려 그런 회장만을 상대하는 것은 마을 전체부인들로부터 저항을 불러일으켜서 결과적으로 그 지역의 가족계획을 그치게 될 위험성마저 있다.

따라서 일선요원들은 협재의 어머니회장 중 결코로는 마을안에서 세도(勢道)가 있고 부인들이 따르는 듯 하면서 내적(內的)으로는 고립되어 있는 그럼 어머니회장이 있지 않나 항상 경계해야야 할 것이다. 이런 풋은 가급적 이면 민중의 심리적·정신적 지지를 받고 있는 어머니로 그 회장을 대체하도록 은밀히 작용을 하여야겠다.

그러면서 파연 마을안에서 진정코 민중의 가족계획지도자의 자격을 가진 어머니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하는 점이 문제이다. 그 방법은 간단하다. 즉 마을안의 여러 부인들을 대할 때마다『이 마을 안에서 아주머니는 누구와 가족계획얘기를 가장 많이 나누세요?』라고 질문을 던져서 그 중 가장 많이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부인이 곧 민중속의 여론지도자(輿論指導者)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처럼 외형적인 권리(權威)보다 내형적인 지도력이 어머니회장 자격으로서는 더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회장을 이처럼 인기와 넓망이 있고 활발한 어머니로 바꿔야 한다.

한마디로 어머니회를 바로 조직하고 바로 이용 활용하는 것은 오원을 일으킬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것으로보이며 어머니회의 의의(意義)와 존재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의 도움을 얻지 못하는 요원은 아무리 노력하여도 혼자서 힘으로는 그 끔찍한 임무를 원만하게 수행해내기가 어려울 것임을 강조해 두고 싶다.

여성난관불임수술은 양측 난관을 절단하거나 폐쇄하여 배란된 난자와 정자가 난관에서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까지도 불임수술은 대수술에 속하며 합병증도 상당히 있고 입원까지 해야 했다. 그러나 복강경(腹腔鏡, 라파로스코프)이라는 기계를 이용한 난관불임수술이 최근에 급속히 개발되어 세계 각국 특히 개발도상국가에서 선종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정확히 풀이하여 이를하면 「복강경 양쪽난관 일부 절제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복부를 많이 절개할 필요없이 복강경과 감자(鉗子, 포셉)를 삽입할 수 있도록 배꼽을 약 5mm정도 절개하고 그곳으로 삽입한 복강경을 통해 보면서 전류가 통하는 감자(포셉)로 양쪽 난관을 각각 잡아 전기로 자져서 막히게 함으로써 난자와 정자가 영구히 만나지 못하게 하는 피임법이다. 수술후 복강경을 넣었던 배꼽가의 수술자리는 보이지 않게 한바늘만 끄매고 그위에 작은 반창고 하나만 붙이면 되기 때문에 「반창고수술」이라는 별명(別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간단히 수술할 수 있는 복강경불임수술을 더 자세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대상(對象) 및 방법(方法)

이 수술시행의 금기(禁忌)로는 심한 심폐질환(心肺疾患) 개복수술로 인한 광범위한 반흔(瘢痕) 또는 유착(瘢著), 지나친 비만증 및 급성·만성 끝반내 염증증이다.

▲수술준비=금기가 없어 수술대상자가 되면 흉부X선촬영, 혈액 및 노검사를 시행하여 마취 및 수술에 안전을 기한다. 수술당일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병원에 와야하고 판장을 하지 않는다.

▲마취=환자에 따라 전신마취와 국소마취중 선택하도록 한다. 근래에 와서는 전신마취와 국소마취가 각각 50% 정도이다.

▲불임수술과정=자궁각(角)으로부터 1~2cm 떨어진 난관협부(卵管狹部)를 감자(鉗子·Operating Forceps)로 잡고 약 3~5초간 전류를 통하면 반경이 약 0.5~1cm되며 조직이 용고되며 난관이 절단된다. 그후 절단된 곳으로부터 난관채쪽으로 0.5~1cm가량 떨어진 곳을 다시 잡고 같은 조작을 하여 두번째 절단을 한다. 그래서 절단된 양쪽 사이에 있는 길이 0.5~1cm의 용고된 난관관(卵管片)을 잡아 끌기며 다시 전류를 통하면 그 난관편이 떨어져 나오게 된다. 출혈여부와 다른기관의 손상여부를 확인하면 수술이 끝나는 것이다. 수술에 드는 시간은 반창고를 끌기까지 10분 내외이다.

동시에 할 수 있는 수술로는 어떤 종류의 수술이라도 할 수 있겠으나 대개는 단산을 원하는 사람들이므로 보통 임신중인 경우에 유산을 동시에 시키는 경우가 많다.

▲수술후처치=회음봉합술(會陰縫合術)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 이외에는 수술후 3~5시간이면 귀가할 수 있으며 귀가후 식사는 보통 식사를 하도록

하도록 하고 수술후 진찰은 수술후 제3일과 1개월후에 받도록 한다.

▲합병증=합병증 중 중요한 것은 출혈 자궁천공(子宮穿孔) 전기소작(燒灼) 할 때 장(腸)의 손상 및 의과적 장기(臟器) 손상 등이다. 합병증의 빈도는 약 1.5%내외이며 제일 많은 것은 난관 부위의 출혈이고 가장 무서운 것은 장의 전기소작으로 인한 뇌박막이다.

▲장점=종래의 여러 가지 여성불임수술 방법들과 비교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장점을 들 수 있다.

①입원하지 않고 외래 형식으로 간편하게 시술할 수 있다.

②시술중 또는 시술후에 별로 통증이 없어 시술한 다음 날부터 자유로히 활동할 수 있다.

③시술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④배에 흉터가 남지 않는다.
⑤단산수술이므로 피임효과가 정확하고 영구적이다.

⑥시술비용이 적게 든다. (약 16,000원)

⑦종전의 난관불임수술이나 정판절제수술보다 합병증이나 실패율이 훨씬 적다. (서울의대 장윤석박사의 경우 지난 1년간 시술 250예중 한 예도 실패하지 않았다고 함)

1973년 4월 최초로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 복강경불임수술이 알려지면서 이를 찾는 부인의 수가 점차로 늘어나고 있다.

복원(復元)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앞에서 열거한 여러 가지 장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현재 사용되는 불임수술방법중 가장 우수하고 안전한 방법으로서 앞으로 단산을 원하는 부인들에게 적극 권장·보급할 만한 방법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국립의료원, 서울대학교부속병원, 연세대학교 부속병원, 이화여자대학교 부속병원, 세일병원 등 5개병원에서 기재를 갖추고 시술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에 관련된 훈련·교육 및 임상연구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수술후에 항생제는 일체 사용하지 않는다. 단지 수술당일 절개창(切開創)의 통통(疼痛)이 있으면 가벼운 진통제를 먹어도 무방하다. 수술 다음 날은 안정을 취할 필요는 없으나 외출은 하지 않도록 하고 제2일부터는 일상집안일을 할 수 있다. 제3일부터는 샤워나 설교도 자유로이

양보다 질에도 신경을

최금순



알고 있다. 그러나 너무 목표탕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질적인 사업에 등한하게 되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우리 요원들은 이 목표탕에 대한 압력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때로는 본의 아닌 수단으로 실적 수치 달성을 사로잡기도 한다.

아무튼 목표탕 제도에 대한 당국의 연구검토가 있어야 하고 요원들은 이에 상관없이 각자가 자기일에 성실하여 양보다 질적으로 우수한 일을 하도록 노력해야겠다.

<전남 광양군 복강경사무소>

가족계획 경품 캠페인 주부클럽 연합회서 10월에



주부클럽 연합회에서는 74년도 후반기 사업의 하나로 10월 중에 집중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세계인구의 해나 임신 안하는 해에 대한 관심을 모으고 이 관심을 피임기술까지로 이어주기 위한 운동으로 서울시와 MBC-TV와 주간지 공동후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가족계획 경품 캠페인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은 두 자녀를 가졌으면서 단산수술을 한 사람, 자녀수에 관계없이 단산수술을 한 사람으로 응모자중에 추첨으로 정하게 된다. 상품으로는 인기있는 가정전기용품으로 이 기간동안 특별히 수술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실비로 남녀 볼입수술도 시술할 예정이다.

약국을 통한 가족계획 사업

대한약사회는 약국을 통한 가족계획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정부의 인구정책에 적극 호응하기로 하고 전국 1천 9백개의 약국을 선정하여 1개 약국에 1천부씩의 가족계획용 팜프렛을 배부하였다. 팜프렛은 8월 말까지 대한가족계획협회에서 발송완료하고 이 팜프렛 배포는 앞으로 1년간 전국적으로 계속 실시될 예정이다.

제1회 일본인구회의

제 1회 일본인구회의가 지난 7월 2일부터 4일까지 동경 국립교육회관에서 개최 되었다. 인구문제연구회, 일본가족계획연맹, 가족계획 국제협력재단, 인구문제협의회와 공동주최로 열렸는데

인구문제와 자원·식량·환경 문제에 관한 기조연설과 특별강연 연구토의 등 다양한 행사를 벌였다. 일본의 현재 인구증가율은 1.2%로서 아시아에서 가장 낮으나 이 비율로 써 매년 130만명씩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0% 인구성장을 목적으로 지지급파 동시에 두자녀로 단산하기로 대회선언문을 채택하고 폐회했다.

10월 3일부터 11월 24일까지 이다.

▲시(市) 一서울, 부산, 인천, 수원, 의정부, 성남, 충현, 원주, 강릉, 속초, 청주, 충주, 대전, 청안, 전주, 군산, 이리, 광주, 목포, 여수, 순천, 대구, 포항, 경주, 김천, 안동, 울산, 마산, 진주, 충주, 진해, 삼천포, 제주, 이상 33개 도시 193 조사구이다.

▲군(郡) 은 62개 군으로 126 조사구이다.

◇경기도—양주군, 평택군, 화성군, 시흥군, 용진군, 파주군, 고양군, 포천군, 가평군, 양평군, 용인군, 안성군, 강화군

◇강원도—춘성군, 홍천군, 원성군, 영월군, 평창군, 철원군, 양구군, 양양군, 영주군, 삼척군

◇충북도—청원군, 보은군, 읍성군, 영동군, 괴산군, 읍성군, 충원군, 제천군

◇충남도—금산군, 대덕군, 연기군, 공주군, 논산군, 부여군, 서천군, 보령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서산군, 당진군, 아산군, 철원군

◇전북도—완주군, 무주군, 일설군, 남원군, 송창군, 정읍군, 고창군, 무안군, 김제군, 익산군

◇전남도—팔선군, 탈양군, 구례군, 광양군, 여천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 나주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경북도—봉화군, 군위군, 의성군, 안동군, 청송군, 영천군, 영일군, 월성군, 영천군, 경산군, 청도군, 삼주군, 청곡군, 문경군, 예천군, 영주군, 봉화군, 울진군

◇경남도—진양군, 의령군, 창녕군, 밀양군, 올주군, 김해군, 창원군, 거제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제주도—북제주군, 남제주군



예비군에 가족계획 교육

대한 가족계획협회에서는 지난 1972년 3월부터 예비군을 대상으로 가족계획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예비군의 연령은 대개 23세부터 35세로써 미혼이나 신혼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2, 3명의 자녀를 갖고 있는 젊은 남성으로 가족계획을 위한 영구피임을 권장하기에 적절한 대상이다. 74년도 7월까지의 사업실적을 보면 부속의원에서 정관수술을 받은자 총 7,729명중 5,082명이 예비

군이었다.

출산력조사

319지역 확정

한국출산력조사 표본조사 구는 총 319지역으로 33개 시(市)와 62개 군(郡)으로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다.

현재 훈련중인 131명의 조사원과 23명의 지도원은 훈련이 끝나는대로 현지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1차현지조사는 9월 16일부터 28일까지 2차 현지조사는

農村部落의 家族計劃에 관한 輿論指導者的 能力」

미국인구협회 후원으로 왕인권(王仁權) 박영일(朴英一) 공동으로 집필한 책으로, 경기도 용인군의 6개 부탁을 선정하여 여론지도자적 능력을 조사하였다. 여론지도자의 추종자 사이의 유사성과 이질성을 규명하고 여론지도자의 사회문화적이며 전달매개적인 모든 특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가족계획여론지도자적 능력과 능사기

술 및 생활개선 여론지도자적인 능력의 특성과 그 상관관계를 각각 살펴서 서술하였다. 영문초록이 별첨되어 있다.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1974. 5×7판, 78P.>

「가족계획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가족법 개정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가족계획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남계혈통(男

系血統) 중심의 가족제도가 개혁되어야 한다는 취지하에 현행 가족법의 문제점을 세밀히 검토하고 개정의 방향을 모색한 연구보고서이다. 16개 도시와 13개 군과 서울의 12 지역을 선정하여 73년 6월 30일 현재 20세이하의 남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가족법 중 개정되어야 할 사항과 가족법에 대한 일반국민의 의식을 살펴 조사하였다. 조사표와 영문초록이 첨부되어 있다.

<김주수著, 1974. 6. 4×6배판, 145 P. 가족계획연구원, 비매품>